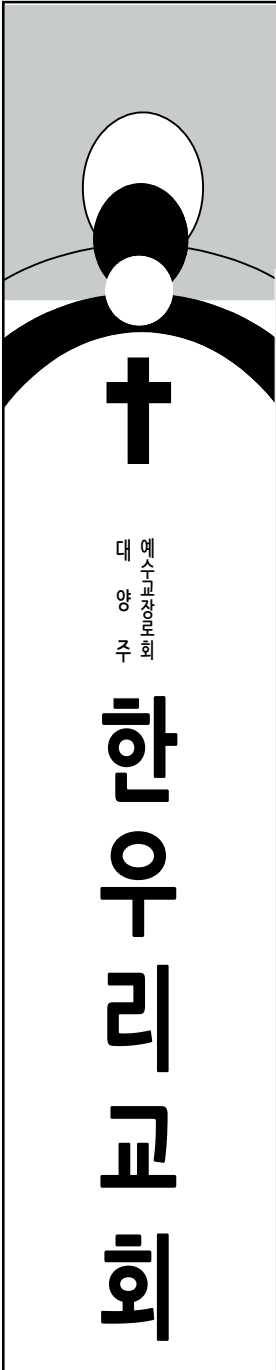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6월 2일(수)
수요찬양예배

6월 20(주일)
정기 제직회

6월 26일(토)
새가족 환영회

6월 27(주일)
성찬식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안현수.2부/안현수 3부/안현수 4부/김의진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새268) 다 함 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 봉헌 및 1부/ 이규삼 권사 2부/ 신규식 장로 3부/ 김태원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요나 4:1-11 사 회 자
- 찬 양 2부: 주 없이 살 수 없네 시온찬양대
3부: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창조의 여백 안현수 목사
- 찬 양 온 맘 다해 다 함 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형 지 원
대표기도
- 말 씬 잠 24:30-31 최영두 목사
게으름에서 벗어나자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김태원 장로 2부/ 조병림 권사 3부/ 최병한 장로 4부/ 신기은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말씀: 디모데후서 1:6-8
 제목: 십자가와 복음
 기도: 이민수 집사(다음주 기도: 한진호 집사)
 설교: 원천희 선교사 (바누아투 Santo Bush Mission)

교회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2. 오는 16일 수요일예배는 바누아투 산토 부족
선교회(Santo Bush Mission) 원천희
선교사께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목장 소속을 원하는 성도들은 1.2층 게시판에
부착된 목장 소개(모임시간/장소/지역/연령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거나 상담 요청.
• 상담 및 문의: 목장 관리팀 021 0575 693
4. 사랑부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헌신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박진석 집사 021 356 818
5. 교역자 동정: 남우택 담임목사 휴가,
6월 10일~17일

교육부서

교육부서 수요일모임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 담당 책임교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토브키즈 (꿈, 약속)
7:15-8:45 pm, 느헤미야홀
- 토브주니어, 토브시니어
7:30-8:45 pm. 비전홀, 조이홀

전도부

이번주일 오후 3시에 타카푸나 우체국
근처에서 거리전도하니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교우동정

■ 새가족

이름	자녀	거주지역
김애나		Schnapper Rock Rd. Greenhite
임종윤 두루미	임승준	Symonds ST. City
한성민 하신영	한설아 한태오	Orakei Rd. Remuera
이종일 장성실	이현우 이하루	Moffat Rd. Red Beach
김 일 김명옥		Marau Cres. Mission Bay
김영식 송진숙	김정은	Rosebery Ave. Birkenhead

■ 소천

지난 6일 고 김인숙 성도께서(채금희 권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심기도

교회의 환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welcome & bless you

- 날짜: 6월 26일(토) 오후 3:30
한우리교회 비전홀
- 대상: 2020년 12월 이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김용태 집사 027 4711 446

오uckland 장로 중창단 공연

화재 피해를 입은 St. Stephens 교회와
파이프 오르간 재건을 위한

‘Mid Winter Christmas Concert’

일시: 6월 26일(토) 오후 7시

장소: All Saints Church Ponsonby
284 Ponsonby Rd. Ponsonby

티켓: \$30(일반), \$15(학생)

문의: 027 480 0191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맘 다해

Babbie Mason 사/곡



주 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시—간 주 님의 보좌 앞에 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



마음을—술—네 모든 것 아시는 주 님께 감출 것 없네 내
하게 하—소—서 다 이해 할 수 없을 때 라 도 —감사하며 날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 온 맘 다
마 다 순종 하며 주 따르오—리—



해 사랑합 니다— 온 맘 다 해 주 알기 원 하네 내 모든



삶 당 신 것 이 니— 주 만 섬 기 —리 온 맘 다 해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빛	1 북한개성	배정석	0211891700	우리	34 로템나무 통가	배대일	02112327817
	2 이란	장세문	0211188526		35 캄보디아 늘푸른	고현숙	021996653
	3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021473018		36 월드파크스탄	손보영	021380366
	4 가나	이광일	0212179303		37 그레나다늘푸른	박기만	021411699
	5 오사카	김택원	0220806738		38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021569056
	6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021556934		39 월드모로코	윤수정	0272008546
무지개	7 중국무지개	이성열	0274573211	참빛	40 가데스바네아	신규식	021417756
	8 몽골	서준열	0274067769		41 에벤에셀 MercyShips	이민수	021810072
	9 섬나	나중엽	021386202		42 태국사랑	김지연	0210316041
	10 오클랜드	장태용	0224695511	43 제주한라	이상용	021821190	
	11 모스코	노희영	0274308322	성결	44 오병이어	최병한	0212136995
엘림	12 탄자니아	김승권	0272302692		45 베트남비전	최성현	021885318
	13 이집트	박진석	021356818	임마누엘	46 필라델피아푸른 최형만(임상규)	021575905	
	14 푸켓주의지팡이	곽은선	02102711230		47 Kia Ora	이경현	02102750654
	15 칠레파타고니아	이근식	021779958		48 솔로몬제도	송현호	02102954933
	16 산토알파	조기동	02102370987		49 감비아	김규영	0220299838
믿음	17 에티오피아	유진성	0212133414	화평	50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021677132
	18 일본	손동욱	0212043531		51 느헤미야	이정석	021868075
	19 러셀	안응진	0211821185		52 예루살렘	박경남	0274325524
	20 LA	경두런	0211365161		53 히엘 필리핀	한진호	0272710948
	21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02102529797	코람데오	54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0211282102
	22 노스쇼어	김주환	021488541		55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021575899
사랑	23 아베스	김인배	021759380	약속	56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021399603
	24 인도네시아	채제섭	021424199		57 통가	송경순	02102562581
	25 평양, 연변 과기대	김주일	0212951530		58 미얀마	신동명	021719167
	26 수단로고스	김성국	0272714894	간유	59 피지	조종면	0275325423
소망	27 하얼빈푸른	김영현	0211721138		60 바나바	김종국	021654688
	28 예멘	형재홍	02102945114		61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021524896
	29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0212627967		62 한국다음세대	정민혁	021630912
다윗	30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0274711446		63 베다니	이강용	021977942
	31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0211063498	64 베트남	김형석	021453862	
	32 익투스북한	박경배	0211705296	65 말라위	여운영	0225439531	
	33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0212168531	66 인도원달라	신교석	021393307	
				67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02102701990	

교구 담당 교역자

1 교구	빛 초원, 무지개 초원, 엘림 초원	김진영 목사
2 교구	믿음 초원, 사랑 초원, 소망 초원	이요한 강도사
3 교구	다윗 초원, 우리 초원, 참빛 초원	안현수 목사
4 교구	성결 초원, 임마누엘 초원, 화평 초원	김민재 강도사
5 교구	코람데오 초원, 약속 초원, 온유 초원	최영두 목사

캐나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

캐나다 증오범죄 충격...무슬림 가족 4명 트럭돌진에 피살

경찰, '계획한 공격 20대 용의자 잡아 조사중, "이슬람 믿어 범행표적" 테러혐의...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저녁 8시 40분께 캐나다에서 보행로로 돌진한 픽업트럭에 치여 3대에 이르는 무슬림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 경찰은 이를 계획된 증오범죄로 보고 가해자에게 테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74세 여성, 44세 여성, 46세 남성, 15세 여성이 숨졌다. 이들은 14년 전 파키스탄에서 캐나다로 이민했으며 런던에 있는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신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9세 소년은 크게 다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용의자인 20세 남성 너새니얼 벨트먼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6km가량 떨어진 쇼핑센터에서 체포됐다. 그는 희생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드 홀더 런던 시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차마 말할 수 없는, 증오에 뿌리를 둔 집단 살해”라며 “3대가 사망한 가족의 희생을 애도한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우환이 미쳤으나 주의 계명으로 살게 하소서”

2030 세대 우울 증세 폭증...“교회 영적 돌봄 절실”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자살 충동...구직기간이 갈수록 늘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1만6,72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77만8천 명)보다 31% 증가한 수치로 5년 새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17%로 가장 높으며 60대가 16%, 50대가 14% 순으로 높다. 과거 ‘노인의 병’으로 불렸던 우울증이 이제는 ‘젊은이의 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이렇듯 2030 세대의 기분장애 환자 비율이 급증하는 이유로 청년층의 구직기간과 우울 증세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 상담을 요하는 우울증 ‘중증 상태인 청년층 대부분이 구직기간 2년 이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고신대학교 하재성 교수는 “교회와 목회자의 적절한 관심과 영적 돌봄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목회자가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자원과 교회가 제공하는 공동체 자원은 고통과 손실을 겪는 성도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의 감사, 영적 의미의 회복, 코로나 이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캐나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슬림 증오범죄의 테러 가능성 때문에 보복 범죄가 이어지지 않게 막아주소서. 범인인 청년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정도의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로 나아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 [대한민국] 가장 힘있게 활동해야 하는 허리와 같은 청년세대가 병들어 자살 위기로 이어지는 이때, 한국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이를 막아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속히 절망을 이기고 회복케 하셔서 복음 듣고 열방으로 힘있게 전진해 가는 한국의 청년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 [환우를 위해] 모든 치료 과정마다 잘 이기고 견뎌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온전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